



## “지성아! 빨리 일어나다오”

노르웨이와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성한 박지성이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격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앙리 역시 ‘무서운 해결사’

단 한번의 찬스 골로 연결  
프랑스, 덴마크에 2대0 승

한국과 독일월드컵 본선 같은 조에 속한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간판 골잡이 티에리 앙리(아스날)를 앞세워 한층 향상된 공격력을 선보였다.

프랑스는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랑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의 강호 덴마크와 평가전에서 앙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격력을 과시하며 2-0 완승을 거뒀다.

미드필드진은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이 예전 같이 위협적이지 못했지만 플로랑 말루다(리옹)와 클로드 마렐레(첼시), 파트리크 비에라(유벤투스) 등이 부족함을 충분히 메웠고 포백(4-back) 수비진은 여전히 견고했다.

▲ 살아난 공격력 “역시 앙리”  
앙리는 역시 약점을 찾기 힘든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다.

프랑스는 지난 28일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투톱으로 출격한 다비드 트레제게(유벤투스)와 지브릴 시세(리버풀)가 정교함이 결여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하지만 앙리가 합류한 이날 평가전에서 프랑스는 멕시코를 상대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였다.

앙리는 특히 단 한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하며 진정한 해결사의 면모를 보였다. 전반 12분 윌리 사놀(바이에른 뮌헨)의 톱패스를 이어받은 루이 사하(맨유)가 헤딩으로 떨어뜨려놓은 볼을 살짝 차 넣어 골문을 갈랐다.

앙리는 이후에도 빠른 돌파력과 개인기, 빠른 위치 선정으로 견고하기로 유명한 덴마크 수비진을 흔들었다.

▲ 지단 노쇠해도 여전히 강력한 중원  
‘중원 사령관’ 지단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쇠한 지예전만큼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체력이 달리는 볼을 갖고 있을 때 몸놀림이 둔해 가끔 상대에게 볼을 빼앗기는 모습도 있었고 상대 미드필더들과 몸싸움에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보였었다.

하지만 지단의 부진에도 말루다와 마렐레, 비에라가 지단의 백업 역할을 든든히 해주며 중원에서 강력한 면모를 잃지는 않았다.

특히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은 말루다는 이날도 빠른 돌파력으로 상대 왼쪽 측면을 공략한 뒤 적절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 견제 대



1일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와 덴마크의 평가전,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가 덴마크의 포울센의 태클을 피해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으로 떠올랐다. 왼쪽부터 아비달-윌리엄 갈라스(첼시)-릴리앙 튀랑(유벤투스)-사놀로 이어지는 수비진은 완벽할 정도로 단단했다.

한편 프랑스 축구대표팀 레몽 도메네크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공격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알프스 전사 “얕보지 마”

강한 체력·기동력 앞세워  
이탈리아전 우세...1대1

‘알프스 전사’ 스위스 축구대표팀이 갈수록 위협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월드컵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평가전에서 시종 경기 주도권을 잡은 채 무승부를 일궈냈다.

강한 체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를 장악해 나갔고, 패스 성공률이나 볼 점유율 등도 오히려 이탈리아를 앞서며 우세한 경기를 했다. 이탈리아전은 스위스 대표팀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스위스는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알렉산데르 프라이-마르코 슈트렐러 투톱을 중심으로 한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프라이를 원톱으로 세우고, 미드필더 다니엘 기라스를 처진 스트라이커로 받치게 하며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다.

미드필드에는 왼쪽부터 라파엘 비키, 요한 포엘, 리카르도 카바나스, 트란클로 바르네타가 포진했다. 카바나스와 바르네타는 자리를 바꿔가며 상대를 혼란시켰다.

포백라인은 좌우에 루도비치 마그닌과 필리프 데겐, 중앙 수비에 필리프 산테로스과 요한 주루가 선발 출전해 호흡을 맞췄다. 골문은 파스칼 주베르벨러가 변함없이 스타팅으로 나섰다.

스위스가 이날 보여준 공격 전개 능력은 지난 코트디부아르전보다 더 짜임새가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몇 차례의 원터치 패스 연결로 수비 진영에 있던 볼은 순식간에 최전방으로 투입됐고, 날카롭게 측면으로 빠져들어 가는 윙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돋보였다.

거칠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선수들을 상대해 전혀 밀리지 않는 체력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코너 등 세트플레이 때 산테로스(190cm), 주루(192cm), 마그닌(185cm) 등 장신 수비수들은 제공권 다툼에 가세해 공격에 힘을 보탤다.

스위스의 약점은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지적됐던 수비에서 다시 나타났다.

스위스 수비의 빈틈은 장신 중앙 수비수의 순발력이 크게 떨어진다든 것과, 공격적 성향이 강한 좌우 풀백들이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자주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가 측면에 빈 공간을 많이 내준다는 데 있었다.



1일 제네바에서 열린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평가전, 스위스의 다니엘 지레크스가 이탈리아 선수를 제치며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키 큰 중앙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한 뒤 역습을 당할 때도 스위스의 수비 라인을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다.

한편 스위스 축구대표팀은 이날 경기에 대해 비교적 흡족한 표정이었다.

아코프 괴비 쿤 감독은 “오늘 경기에 매우 만족하며 기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지 훈련지 잘못 선택해 부상 속출”

#### ■ 한국축구연구회 지적

축구대표팀의 잇따른 부상과 관련해 한국축구연구회(이사장 허승표)가 아드보카트호의 해외 전지훈련지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덕기 축구연구소 사무총장은 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서 선수들의 피로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스코틀랜드 현지 기후와 잔디 사정이 줄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잔디 미끄럽고 현지 기온 낮아

그는 “해외 전지훈련과 적응훈련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면서 “스코틀랜드 현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약간 추위를 느낄 정도이고, 미끄러운 잔디 또한 선수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벼운 충돌도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스코틀랜드에 캠프를 차리고 노르웨이와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김덕기 사무총장은 “훈련지 선택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2배수로 선발하고 예비후보 5명을 확보한 것도 부상에 대비한 것이지만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다치면 전력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 최진한 前 전남코치 프랑스전 전략

“프랑스와 상당히 힘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팀이 강한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을 해야 합니다”

최진한 전(前) 전남 드래곤즈 수석코치가 한국과 독일월드컵 본선 G조에 함께 속한 프랑스 대표팀을 공략할 방안을 내놓았다.

최진한 코치는 1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랑스에서 열린 프랑스-덴마크 평가전(프랑스 2-0 승)을 지켜본 뒤 “역시 강한 팀이다.

한국이 매우 힘든 경기를 하겠다”며 “하지만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코치는 우선 발 재간과 스피드가 좋은 앙리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앙리의 전담 마크맨을 한 명 배치해야 하며 그가 공격에 나설 때는 파울로 차단하거나 두 사람이 협력수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앙리에게 볼이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중원에서 강력

한 압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주전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우리가 강한 체력을 앞세워 경기 내내 압박을 하면 해 불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앙리를 앞세운 프랑스 공격진을 막아내려면 현재 아드보카트호가 쓰고 있는 포백보다는 스리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앙리가 나설 때 두 사람이 협력 수비를 하면 다른 쪽에서 빈틈이 생기게 된다”며 “다른 선수가 수비의 빈 공간을 메워주기

가 용이한 스리백이 포백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코치는 한국의 공격 상황에서는 빠른 역습이나 측면 돌파 이후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견고한 프랑스의 포백 수비를 정상적인 공격 루트로 뚫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미드필드에서 볼을 빼앗은 뒤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해야 수비수가 제 자리를 찾기 전에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코치는 이어 “측면을 활발히 돌파하며 정확한 크로스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수에게 연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원 압박·빠른 역습·앙리 전담마크 필요”